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호 [루게 제24782호] 주제 104 (2015)년 1월 4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교육인재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제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심장에 새겨두고 김형직사범대학이 맡고있는 영예로운 사명감으로 하여 가슴은 끓는 격동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양성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자들에게 베풀어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대학에서 후대교육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부터 집행할 새 과정안들을 훌륭하게 작성하고 수시건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사업에 적극 이바지했으며 원수님에 대한 새로운 찬탄사조들을 반영하여 교수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 과정에 우수한 교원후보들을 많이 양성하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지난해에만도 1명의 후보원사와 10명의 박사 배출되었다.

그러나 당의 위대한 인제강국 건설수장에 비해볼 때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방대하다. 순간이라도 마음의 완강을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미진한다는 자각, 가까운 앞날에 더 많은 교육인재들을 키워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기어보답해야 한다는 의지가 우리의 가슴에 백배, 천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첨단과학기술을 부단히 개척하여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경쟁할수 있는 교육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야심만만 한 목표밑에 교육체계를 완벽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혁신하며 다기능화된 교사를 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교육인재양성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도록 새로운 강령들을 내놓기 위한 사

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의 대우를 키워내겠다.

우리는 나라의 후대교육을 위한 원동력을 지켜서야 한다는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학생들을 전방적 12년제의무교육을 담당수행할 능력이 있는 양질의 교육자들로 훌륭한 키워내도록 사회주의문명건설을 위한 인재대군의 발걸음소리가 조국방방방곡곡에 더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

김형직사범대학 학장 변규순

를 내세웠다.

목표는 방대하다.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우리의 전진길에는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이 놓여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반드시 비약적인 생산성과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어로골들부터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반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가겠다.

캐뎬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석탄생산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켜나가겠다.

석탄생산은 넘어라!

우리 연합기업소는 당장건 70톤을 맞는 올해에 전국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릴것이다.

덕천지구관할연합기업소 지배인 장강훈

어구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풀며 연유가 부족하면 작은 배틀로 세조어업을 하는 등 맹렬한 어로전을 벌이는데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하였다.

지나온 년대들에 파도세찬 바다위에 풍어를 날리던 천리마시대의 기수들처럼, 풍랑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이던 청년들처럼 오늘의 당중앙결사옹위전에서 침체를 모르는 돌격전의 기수가 되려는 것이 기업소일꾼들과 어로공들의 한결같은 심장의 분출이다.

우리는 대중의 정선력이 그대로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이어지게 하고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오늘의 정면전 투쟁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

신원연합사범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재경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고있는 국가과학원의 일군들 본사기자 찍음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가 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접하고보니 포부도 커지고 새 힘이 솟는다.

당장건 일흔톤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수산부문의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갈수 있다는 신심이 백배해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의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그 사랑, 그 믿음에 영예의 금메달로 보답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고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장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날리는데 우리 체육인들의 전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은 지금 백두의 용마당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식의 전향으로 골합없이 싸워 승리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올해의 물고기잡이실적은 전적으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지

휘판들처럼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완강히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를 주름잡으며 그들을 혁신으로 떠미는 추진기가 되고 송풍기가 됨으로써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는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의 최성이 온 바다를 진감하도록 하였다.

어비수령님의 애국유신인 기업소의 수산물생산도대를 더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황해남도로련건설에 참가한 황해남도로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정초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일떠서야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 제강소들이 생산을 높일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경제강국건설에 앞당겨지게 됩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3일 3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어비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무산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조망처럼 대형원추형파쇄장의 설비조립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30만산대발파를 진행할것을

장엄한 진군길의 첫

만해 생산보장하였다.

운광사업소의 일군들과 대형화물자동차운전자들은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놓았다. 그리하여 대발파가 진행하는데 맞게 늘어나는 막도를 빠

회향한 새해를 맞으며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 장엄한 발파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꿰뚫는 격조와 활력에 접한 황해남도물길건설에 참가한 황해남도로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총천연 기세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 1일 1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정초에 울려 퍼진 장엄한 발파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발파소리

른 시일안에 처리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련관단위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모하였다.

3일 철산봉을 울리며 3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일흔톤과 당장건 일흔톤을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빛내려는 려단의 전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의 힘찬 파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군에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황해남도물길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어 나라의 농업 생산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였다.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긴 황해남도로련의 일군들은 수백리 흙물길공사를 제기에 열매기 위한 경제조치사업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삼천군대대가 맡고있는 흙물

란전에 내려치는 혁신의 기상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금야첨년단관 일군들과 탄부들이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울릴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지도부에 김태진, 김철동무를 비롯한 탄부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정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참모부 일군들은 막도처리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변화되는 현장조건에 맞게 공정법, 강별형동작전과 맞춤형작업이 잘되도록 통일적인 생산지휘체계를 세워놓고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진행하고있다.

탄부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어 비료생산에 적극 이바지하는데는 애국의 한마음이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을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을 활기 있게 하고 원할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뛰어들어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실적을 올리고 있다.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생활의 척도인 철도 운송의 투쟁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헌신감각이 떨쳐나선 이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철

중승의 기적소리 높이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도성적인 첫날수송계획이 101.2%로 수행되었으며 편일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과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을 새겨안은 철도성 일군들은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다같이 틀어쥐고 새해 정초부터 립체전을 벌이고있다.

책임일군들부터가 들끓는 현장들에 내려가 대중의 신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악시켜주고있으며 그들이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위훈자가 되도록 화신적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열별, 구간별 화차들의 배치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동등있게 함으로써 각 철도국들에

높이

림조직사업 등을 짜고들어 계획보다 많은 짐을 실어내림으로써 첫날계획을 102%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힘차게 내달려 편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청진, 라선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기관차, 화차들의 수리정비를 간지게 하고 열들사이의 련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매일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인민경제 중요부문들과 피줄처럼 이어진 나라의 두줄기 궤도에서 새해부터 울리는 중승의 기적소리는 조선로동당장건 70톤을 향하여 진격해나아가는 각지 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란전에 내려치는 혁신의 기상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금야첨년단관 일군들과 탄부들이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울릴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지도부에 김태진, 김철동무를 비롯한 탄부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정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참모부 일군들은 막도처리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변화되는 현장조건에 맞게 공정법, 강별형동작전과 맞춤형작업이 잘되도록 통일적인 생산지휘체계를 세워놓고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진행하고있다.

탄부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어 비료생산에 적극 이바지하는데는 애국의 한마음이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그 전례의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이상의 석탄을 생산한 기세를 높이지 않고 생산물질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특파기자 리승철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백두의 넘과 기상을 안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칠 주제 104
(201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신년사에
매박치는 백두의 숨결로 울며 총공격
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부닥치는 에로와 난관을
맞받아싸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이며 백년 쓰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이다!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에 대
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완강한 투
쟁을 벌려 지난해를 자랑한 위훈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전
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
운 인사말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

은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사회
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
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최후승리의 앞날을 새해의 첫 기
숨에서 바라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이 차넘
치는것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
두의 칼바람정신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다는 알지 못하였다.

주제 103(2014)년 새해의 첫
진군길에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은
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뜻깊은 대회장마다에 빛발치는
그이의 위대한 사상을, 혁명군대지휘
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로
는 나라에 백두산바람을 일으키도록
해주시길 고인의 의도를.
지난해 10월 하늘땅을 휩쓸며 세
차게 울부짖는 눈보라를 맞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의 정점
장군봉에 오르시였을 때였다.
천지를 통째로 뒤흔들듯 태고연한
천고의 밀림은 폭풍처럼 세이는데 혁
명의 성산에 거연히 서서서 지금껏
이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
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승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
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보입니다. ...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버려주고 모
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
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
자를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추를 내
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는 심정으
로 이 나라의 높고 험한 산발들과 파
도세찬 항해길, 삼복의 무더위길, 비
바람, 눈보라를이치는 강행군길을 이
여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선군실록에
는 주제 102(2013)년 11월
의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흰눈이 강산같이 내려쌓인 백설천

지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
보이는 삼지연군을 찾으시었다.
백두의 넘과 기상은 모진 추위가
대지를 얼리는 것처럼 추운 날씨에
삼지연에로의 강행군길에 나서신
우리 원수님께서 물아치는 눈바
람을 맞으시며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세워진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혁명의 만
년세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이
라고, 삼지연대기념비앞에 서니 백
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끝
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이것이 더욱 굳어져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달신달인 백두의 산발을 바라보시
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겨안으신
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이 땅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넋이 쏠린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실 불변
의 신념이었고 의지였다.

의 요람,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난 평양음악원, 평양에
육원을 돌아보실 때에도, 인민의 아
름다운 꿈 꽃피어나는 건축물들을 하
나하나 일떠세우실 때에도, 황금해의
새 역사를 안아온 희한한 물고기대
종 앞에서 노래 《바다 만풍가》의 한
구절을 부르실 때에도, 중앙양묘장에
서 온 나라의 수필화, 원림화의 불길
을 지켜주시 때에도, 최첨단을 자랑
하는 현대적인 공작의 구배를 걸으
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
두의 칼바람을 안고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장깊이 새
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
바람정신이 안아온 우리 조국의 빛
나는 현실을 보라.
미림수구락부와 마시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통일인민유원지, 유성
과학자주택지구, 승조민족소년단
야영소, 연평과학자휴양소, 조선인민
군 2월20일공장...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항일혁명선열들의 절절한 당부가 천만의 심장을 두드린다. -삼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워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백번 쓰
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
는에 대해 중요하게 강조

하시었다.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
마다에 그대로 매박쳐야 할 귀
중한 사상정신적재보를 마련한
항일혁명투사들은 어떤 정신력
의 장자들이었던가.

오중홍동지는 이렇게 언제나
사령관으로서 주는 과업의 이렇고
쉬운것을 마치거나 환경조건지
의 리고 불리한것을 타산하기 전
에 먼저 무조건 접수하고 그 해
결방도를 찾았으며 스스로 어
려운 임무를 맡아 어떤 일이 있
어도 끝까지 관철하곤 하였다.

그해 겨울 더 깊은 산중으로
 옮겨갔던 초막병원이 뜻밖에도
적들의 수색에 걸려들게 되었다.
제일먼저 적을 발견한 박순
일동지는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생포되도록 달려
드는 적병을 붙잡고 버려야하
도록 굴러떨어지면서 《토벌대가

왔다.》고 고함을 쳤다.
혁명을 위하여서는 스스로
자기 발을 자르면서까지 생명을
을 귀중히 보존하였지만 동지
들을 위하여서는 자기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이런 항일의 불
사조들이 바로 백두산에서 살
며 싸웠다.

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1930년대의 행군에
였다. 항일혁명투사 오중홍
동지가 이끄는 7련대는
사령관동지의 전략전술적방
에 따라 적들의 《토벌》역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상강구방향으
로 행군하게 되었다.

승리가 올 것이요. 우리가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면 그만큼 조국을 해방할
그날이 가까와올것이고 따라서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요.》라고 대원들을 고무하
고 교양하면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자는 굳은
의지로 편대를 이끌었다. 편대
는 끝끝내 사령관동지의 명령대
로 눈들을 상강구까지 끌고가
고야말았다.

이해 겨울 후방병원에서 치
료를 받던 항일혁명투사 리두수
동지가 적들의 수색으로 하여 동
지들도 초막도 뒤흔들고 다 잃고 산
중에서 홀로 남게 되었을 때였다.
옛새동지이나 꼬박 굶은 리두수
동지는 다행히도 한 동지가 끼
니를 마련할 때마다 몇알씩 절약
하여 남겨둔 뒤살필 되는 콩을 발
견하게 되었다. 그마저도 얼마 못
가서 다 거덜난 다음에는 매떡이
가 떨어먹곤 한다는 속새를 씌
으며 목숨을 이어갔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다
어느 겨울 후방병원에서 치
료를 받던 항일혁명투사 리두수
동지가 적들의 수색으로 하여 동
지들도 초막도 뒤흔들고 다 잃고 산
중에서 홀로 남게 되었을 때였다.
옛새동지이나 꼬박 굶은 리두수
동지는 다행히도 한 동지가 끼
니를 마련할 때마다 몇알씩 절약
하여 남겨둔 뒤살필 되는 콩을 발
견하게 되었다. 그마저도 얼마 못
가서 다 거덜난 다음에는 매떡이
가 떨어먹곤 한다는 속새를 씌
으며 목숨을 이어갔다.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동지
들의 최후를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것은 자기
를 희생시켜 나를 살려준 동지
들에 대한 배신이다. 살아서
다시 전장에 나서라는것은
사령관동지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나는 그 명령을 어길
권리가 없다.》
리두수동지는 살기 위한 필사
적으로 목숨을 보존하였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것은 자기
를 희생시켜 나를 살려준 동지
들에 대한 배신이다. 살아서
다시 전장에 나서라는것은
사령관동지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나는 그 명령을 어길
권리가 없다.

하늘에서는 적비행기가 까마
귀매처럼 돌아치고 땅에서는
수십마리의 군견을 앞세운 적들
이 미친듯이 달려들면서 잡시의
일 톱도 주지 않으며 발악했다.
모진 굴추림과 사나운 추위, 극도의
피로로 이겨내며 끊임없이 달
려드는 적들을 죽이고는 끌고가
고, 끌고가다가는 또 죽이면서 행
군하던 그때의 곤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지만 오중홍동지는 《속담
에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이
있소. 우리가 지금은 고생을 하
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항일의 불사조
보존보전투가 있는 직책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방병
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대원들
에게 갖가지 물자들을 보내주시
면서 병마와 싸우며 반드시 이겨
달라는 부락과 안치된 다음 전
장에서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
의 편지를 보내시었다.
그때 군사부장으로 사업하며
치료를 받던 항일혁명투사 박순
일동지는 편지를 받은
뒤서서 씌는 발을 자기스
스로 잘라냈다.

그는 휘저기려는 양철톱으로
용근 옛새동지이나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씌는 발을 자기스
스로 잘라냈다.
그는 휘저기려는 양철톱으로
용근 옛새동지이나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씌는 발을 자기스
스로 잘라냈다.

사나운 백두산추위속에서 먹
을것도 없이 한 마대조각으로 몸
을 가리우며 지내야 하였으니 그
간신히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최후를 각오한 순간
에 리두수동지는 완쾌되어 전장
에서 만나고자 하는 발을 자기스
스로 잘라냈다.

사나운 백두산추위속에서 먹
을것도 없이 한 마대조각으로 몸
을 가리우며 지내야 하였으니 그
간신히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최후를 각오한 순간
에 리두수동지는 완쾌되어 전장
에서 만나고자 하는 발을 자기스
스로 잘라냈다.

천만군민이 크나큰 격정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
아안았다.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
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이 신년사의 구절구절마다에 열
마나 새겨져 매박하고있는가.
올해에도 당의 두리에 단결하
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자기
초소, 자기 일리마다에서 만세
의 함성 높이 울리며 승리의 기
발을 휘날려갈 천만군민의 기세
는 드물다.

당과 승결을 같이하는 그들,
당의 수산정책관철의 견조병인
날것들과 한결호에 선 그들이
못내 대결하였던것이다.
이로공가족들을 정경계 바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수고한다고, 당정책관철에
서 본보기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우렁찬 함성이 울려

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것은 당에 큰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사회주의포구에서만 울린 만
세소리가 아니다.
김정성평양방직공장, 평양어
린이식료품공장, 평양음악원,
평양애육원...
이 땅에 울려진 만세소리가 아

히 오직 당만을 따르려는 심장의
목소리이며 우리의 꿈과 리
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서
더욱더 다져지는 일심단결의 분
출이다.
우리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
서 언제나 필승불패의 힘의 원
천으로 된것은 무엇이었는가.
일심단결이었다.

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고 인민
의 명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
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
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바
로 이것이 적들이 그 어떤 잡소
리로도 흔들어놓을수 없는, 돈
으로도 유혹할수 없고 핵동등이
로도 깨뜨릴수 없는 오직 우리
에게만 있는 최강의 무기이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며 발악하
고 태양의 빛발은 가리울수 없
으며 일심단결의 성세는 허물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
고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합
니다.》
하나의 역사적회록이 잊혀지
지 않는다.
지난해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
업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로공가족들이 물
고기가공작업을 하고있는 모습을
보고서 대단히 기뻐하시었다.

당과 승결을 같이하는 그들,
당의 수산정책관철의 견조병인
날것들과 한결호에 선 그들이
못내 대결하였던것이다.
이로공가족들을 정경계 바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수고한다고, 당정책관철에
서 본보기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우렁찬 함성이 울려

적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적들은 우리의 위성과 핵도
두려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것
이 있다.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
오는 로동당만세소리이다.
천만군민이 퍼지는 만세소리.
그것은 자기 명도자와 뜻을
함께 하려는 신념의 웨침이며
당과 승결을 같이하고 모두가
원수님께서 되어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할 맹세의 웨침이다.
기쁨 떠나 어려울 떠나 영원

세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
전쟁시기에도, 천리마대고조시
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물론
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던
때마다 그리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험한 진군길에
서도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
로 영웅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졌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더욱더 굳건해졌다.
명도자는 인민을 위해 끊임없

우리는 심장으로 웨친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
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몸쳐진 우리의 일심단결, 그것은
어떤공포에도 비길수 없는 가
장 큰 재부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펼쳐온 우리의 진군길에는 언제
나 만세소리만이 영원히 울려
갈것이다.
모두다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앞으로!
본사기자 김철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
시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
여 만단을 헤치며 싸
워 승리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필승의 신
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
민의 심장을 두드
려야 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
라, 내 민족을 위하
여!
한자한자 가슴에 새
겨줄수 있는 항일혁
명선열들이 지녔던 필
승의 신념을 더욱 깊이
심어주는 성스러운 이
름발이 얼마나 천만
의 심장을 뜨겁게 울
려주는 것인가!
일제기 위대한 수령
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의
독립을 기어이 이룩
할 필승의 신념을 굳
게 다져서 조선혁명의
맛을 올린 《2.27
열혈청년혁명가들》
천출명정신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명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었기에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그
영광에도 드물지 않는
백두의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승리를 앞
당기리라

가 장 큰 위 력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
고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합
니다.》
하나의 역사적회록이 잊혀지
지 않는다.
지난해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
업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로공가족들이 물
고기가공작업을 하고있는 모습을
보고서 대단히 기뻐하시었다.

당과 승결을 같이하는 그들,
당의 수산정책관철의 견조병인
날것들과 한결호에 선 그들이
못내 대결하였던것이다.
이로공가족들을 정경계 바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수고한다고, 당정책관철에
서 본보기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우렁찬 함성이 울려

적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적들은 우리의 위성과 핵도
두려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것
이 있다.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
오는 로동당만세소리이다.
천만군민이 퍼지는 만세소리.
그것은 자기 명도자와 뜻을
함께 하려는 신념의 웨침이며
당과 승결을 같이하고 모두가
원수님께서 되어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할 맹세의 웨침이다.
기쁨 떠나 어려울 떠나 영원

우리는 심장으로 웨친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
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몸쳐진 우리의 일심단결, 그것은
어떤공포에도 비길수 없는 가
장 큰 재부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펼쳐온 우리의 진군길에는 언제
나 만세소리만이 영원히 울려
갈것이다.
모두다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앞으로!
본사기자 김철혁



구호문헌을 통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운다. -대선산유원지관리소 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서- 본사기자 찍음

새 히 성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일 열의로 들끓는 농업전선

10월의 대축전장에 승리자의 자랑안고 들어서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선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자

자난해 우리 도의 농사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하지만 우리 당이 바라는 웅대한 높이를 올라가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귀중한 교훈이 있다.

한해농사대개안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달았다. 지난해 도의 농사대개안을 매시, 군의 실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세웠더라면 도적으로 수만의 알목을 더 생산하였을것이다.

올해 우물과기, 종장판들, 물결제거를 비롯한 관계시설공사들 3월까지 무조건 끝낼 때 당한 작전안이 세워졌다. 공사는 방대하지만 성과가 없었다. 공사에서 자난해와 비교하여서는 우리 일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뛰는가에 달려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은 과학농사를 떠나서 그 어떤 좋은 결실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것이다. 영양단지모 하나만 돌보아도 배반군을 비롯한 다른 도의 여러 군데에서 많은 면적의 논에 받아들여 왕가물을 이겨낸 경험은 우리에게

깊어오르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각기 농업부문 일꾼들은 지난해 농사의 교훈을 돌이켜보며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혁신의 불길은 더욱 새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무르히 고고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대로 물결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에 기여가 자기 단위안에 맡겨진 알목생산목표를 절명할 신심에 넘쳐있다.

모든 일꾼들이 농사대개안을 다시 검토하고 가물건달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며 가물구복에 좋은 영양단지모, 영양행상모의 비중을 대폭 늘일 계획이다. 뿐 아니라 적은 물로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 이랑제배면적을 늘이는 것과 함께 탐조류생물활성제비생산에도 더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당이 제시한 알목생산목표를 기어이 절명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당의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어려리벌을 황금벌의 본보기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올해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기 단위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